

계시록 5장

누가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가?

계시록 5:1-7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5:1)

흠정역(KJV)에서 '책(book)'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두루마리(scroll)'를 옮긴 것이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5:2-4)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책이 있다.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과 땅에 그 책을 능히 펼 자가 보이지 않자 요한은 큰 소리로 슬피 울기 시작한다.

여기서 책은 무엇이고 인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은 틀림없이 땅의 권리 증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에덴에 두시면서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으로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고 하셨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날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 주어 그도 먹었다.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을 속이고 유혹했던 사단에게 자기들이 가진 땅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6:16)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다. 먼저 하나님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불순종의 행위였으며, 사단에게는 자기를 복종시킨 순종의 행위였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땅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다. 땅의 권리 증서는 사단에게로 넘어갔고 세상은 사단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러 오셨다. 다시 말해서 ‘밭(field)’을 사려고 오셨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밭에 있는 ‘보화’는 교회이다.

예수님은 땅을 사시려고 돌아가셨다. 세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으며, 사단은 그 후로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천하만국은 나의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마4:9). 사단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자기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그것을 모두 넘겨줄 권세가 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논박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었다. 그 때 세상은 모두 사단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굶주림과 기형아 출산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지 말라. 전쟁과 온갖 범죄를 하나님 뜻으로 돌리지 말라.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보지 못하고 사단의 명령만을 본다. 사단은 세상의 군주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단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14:30).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고후4:4).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벧전1:18-19). 예수님은 세상을 사셨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도록 두셨으나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히2:8). 예수님은 땅을 사셨으나 아직 그 권리증서를 가지고 자신이 그 땅을 샀노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이제 곧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을 되돌려 받는 법’이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재산은 6년 동안 새 주인에게 있게 된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 당신이 봉해진 증서의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으면 그 재산을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 당신의 친척이나 가까운 혈족이 당신을 대신해서 갚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은 가족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재산을 갚는 친척을 히브리어로 ‘고엘(goel)’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근친 구속자’이다.

7년째 되는 해에 그 친족 중에서도 갚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의 소유권은 영원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갚을 기간이 지나가기 전이나, 본인이나 ‘근친 구속자’가 문서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결코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재산에 대한 돈을 지불하기 원한다면, 성문에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인봉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인봉을 떼고, 그 문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팔렸던 그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일 종으로 팔렸다면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에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속법, 즉 해방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 사람은 6,000년 전에 죄의 종으로 팔렸었다. 구속받을 권리의 기간이 곧 끝난다. 사단은 이 땅을 약 6,000년 동안 소유해 왔고, 우리는 7,000년 시기로 들어가는 무렵에 있다.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가 곧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6,000년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끝이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마24:36)

계시록 5장의 하늘 나라 장면에서 이 두루마리는 ‘지구의 차압문서’이다. 때는 왔고 6,000년의 만기가 다가왔다. 천사는 큰소리로 “누가 이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할 수 있으랴?”고 외쳤다. 그런데 인봉을 뚫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지구는 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속할 능력이 없다. 요한은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크게 울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펴서 계약한 것을 갚지 못하면, 세상은 사단의 능력과 통치 아래 영원히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요한의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떠한가 보라.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가? 질병, 슬픔, 고통 등이 모두 이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이는 정말 슬픈 일이다.

장로 중의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때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5:5-7)

요한은 유대 족속의 사자가 인봉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하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 아직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흔적이 있었음을 안다. 얼굴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지기인 줄로 알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그분의 얼굴이 상처로 인해 변형되었을지도 모른다. 요한이 하늘 나라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얻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라고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를 두고 한 것인데 우리도 그분을 보면 놀라게 될 것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53:2).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사52:14). 예수께서 심히 맞으셨기에 사람으로 인식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러 교회와 함께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또한 사단을 보고 놀라워한 사실을 말한다. 루시퍼를 보는 사람들은 놀라 ‘세상에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며 나에게 고통을 준 자로구나’라고 말할 것이다(사14:10-19). 사단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은 또한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5:8-14

요한이 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였다. 그분은 보좌와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 사이에 계셨으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곧이어 온 하늘에는 찬양과 승리의 외침이 시작된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5:8)

당신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첫번째로 언급한 내용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9-10). 우리의 첫번째 기도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다. 우리 가장 바라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가 이른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5:9-10)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읽어보라.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는가? 누가 이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겠는가? 오직 교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다. 그들은 열방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다. 교회는 열방으로부터 빼내어진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값 주고 대속하신 것이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라.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실 때 하늘 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도가 향으로 드러질 때 예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어린 양은...합당하시도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난을 가져오는 첫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이다.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가지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노래를 외우고 있다. 그 노래의 곡조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들으면 곧 따라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5:11)

천천만만의 무리가 보좌 주위에 둘러 서 있다. 얼마나 많은 무리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5:12)

하늘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히1:6)라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무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천국의 영광일 것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5:13)

성부와 성자가 모든 피조물로부터 똑같은 영광과 경배를 받는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5:14)

이는 예수님이 땅의 소유권리 증서인 책을 가지시고 구속 사역을 마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의 광경이다. 그것은 그분이 구속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이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8:22-23)고 했다.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값 주고 사신 것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고 계시다. 그분은 책을 가지고 합법적인 그 소유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